第七百三十三號 (一) THE DONG-A DAILY, SEOUL 大正十一年八月三十一日(木曜日) (大正九年三月五日第三種郵便物認可)

東亞日報

水害의慘

兄弟의사랑을表하라

水害라는것보다는 水害의慘이라함이實狀을陳함에適合하고 洪水一去後 荒凉한그景光에對한 吾人의感想을表함에穩當한文字일가하노라 水害의慘 果然慘憺하며 荒凉하며 悲痛하도다 地方來報에依하거나 그實地踏査員의調査에依하거나 그實地經驗者의言에依하거나 한번그實況을聞할時에 吾人은 一種悽愴한氣가自然히動함을禁치못하겟나니 南川 新幕 物開等地며鳳山一圓과載寧一部 特히南北栗面一體로論하면 人命의傷失, 家屋의倒壞, 田畓의破損, 家産의流沒等人目으로써可히忍見할수업슬뿐아니라 그數量을可히測定하기難한形便이라 三四十戶로써一村을成하야 一般富豪를稱하든村里에 이제는다못洞口의白楊이點々할뿐이며 數三千戶로써隔西一帶의寶庫를稱하든곳에 다만天幕의炊烟이散漫할따름이니 그子를失한親 그親을喪한子 妻는夫를呼하고 夫는妻를呼하되 去向가杳然하야知함이無한者, 老幼가相擁하야 그生을寡하되 食할에糧이無하고 宿할에家를失하야 朝夕의生을歎하는者 病에罹하고 飢에迫하되 醫藥이無하고 敗頹道가絶하야蒼天에號吟하는者 百圍을代함에遲邊으로써하며 家産을代함에累々한土塊와泥屈로써하는等 그世界의荒凉한光景은果然吾人으로하야금 此民生의將來를奈何오하는歎을發케하는도다 積品을一失하얏는지라 무엇으로써 商을營하며 田畓은壞하고 農作은沒하야可히收할것이無한지라 무엇으로써그口를糊하리오 老幼가相提하야 倚를求함이하고 病子를指하야 醫를求함이 想必 그定한團結이無하니 荒凉한天地에그生을寄치못하는것이 人生의定命이라하면此亦不得已한事라할것이나 文明世代라하고 文化社會를稱하는 或은同胞民族을稱하는 朝鮮社會에在하야 洪水의一役으로此慘憺한光景을演出함이 엇지吾人의悲感을動치아니하리오

社會는相扶相助를依立의原則으로하며 國家團體는患難相救를爲하야의合力을그存在의理由로하는것이며 就中에도數千年來의歷史를背景으로하야 그文化가同一하고 따라그感情이同一하고 生活이同一한「民族」이라「兄弟」라「同胞」라稱하는것은그過去에在하야서도困難을勝함에力을協하야勝하고 現今에在하야서도患難을救함에 그力을合하야 衆力으로써救하는點에 그理由가存하나니 兄弟가水의侵害를受하야悽慘한境遇에陷하되 吾不關焉의心理를持하며 그生道를失하야食을乞하고 衣를求함에至하되 一顆의餘裕를存치아니하는冷々한情理이면 此를엇지兄弟라하고 同胞라하며 此로써엇지社會를組織하야 共存共榮을圖하며 國家를組織하야 生命을保한團體를成한다하리오 吾人은機會잇슬써마다 筆을擧할써마다 朝鮮人의社會的運動을高唱하고 民族的으로動하기를求하얏거니와 朝鮮人이全社會的으로動하고 全民族的으로行할것은 單히政治問題뿐이아니며 勞働問題뿐이아니며 또한虐待問題뿐이아니라 實로 同胞가死境에陷한境遇에는 그如何한原因을勿論하고 此를救濟하기爲하야 全社會가動하고 全民族이動할것을意味하나니 此는實로朝鮮社會가 一體로組織이되고 組織된體가敏活한感情과 分明한理性으로써活動하는것이될것이아닌가 四千年來의歷史를背景한民族이 民族으로써生하고 二千萬民衆이 民衆으로써一體를成하야 社會의互助, 國家團結의眞意를發함이되지아니할가 情의아름다운點이 눈물로써表示된다하면 此荒凉한洪水後를面하야 晴淚를合하고 此荒凉中에佇立하야 或은腕을垂하고 或은腕을拱하야 그爲할바 그行할바를實노知치못하는兄弟를爲하야 深切한同情의熱淚를下함이 朝鮮兄弟로써아름다운點이아닐가 吾人의病傷에臥하야呼하는것이 父母의情의…… 이제水害의慘酷을當하야 그依할바 食할바無한 吾人의同胞兄弟가 果然希望을喪할것인가 무엇이며 同情을向하야求할者誰일가 아! 朝鮮兄弟는 兄弟로써의 深烈한同情을 此罹害兄弟에게 傾하야表하라 이彼等兄弟에게 一脈의光明을投하고 慰安을與하는道理일가하노라

中國의思想革命과文學革命(九)

七、文學革命과新人(譯)

陳獨秀가推稱한것이 胡適의文學革命을이와갓치有名하게한他一重要原因이다 雜誌「新靑年」民國六年二月一日發刊第二卷六號에는 陳獨秀의文學革命論이揭載되얏다 그激烈하고 赤熱이燃하는곳에 果然「文學革命」을成功시길만한氣勢가存하얏다 胡適의文章에는 謙讓이라면謙讓, 狐疑이라면狐疑가有하얏스나 陳獨秀에至하야는斷々乎勇往邁進하는慨가有하다 그런즉 年少한胡適으로하야금 一步도退치못하게그後를援助하고 煽動한者는 實로陳獨秀그人이라고稱할수가잇다 此는陳獨秀의欠點이아니라 實로可히知할것이다

「文學革命의氣運이醞釀된지一日이아니나 그비로소義旗를擧한 急先鋒이된者는 吾友胡適이라 余는全國學究의敵이됨을甘受하고「文學革命軍」의 大旗를高히張하야써吾友의聲援을爲하노라 吾革命軍의三大主義를 旗上에大書特筆하얏스니 曰彫琢的阿諛的貴族文學을推倒하고 平易的抒情的國民文學을建設함 曰陳腐的鋪張的古典文學을推倒하고 新鮮的立誠的寫實文學을建設함 曰迂晦的艱澁的山林文學을推倒하고 明瞭的通俗的社會文學을建設함」

胡適이具體化하야展陳함과反對로陳獨秀는主義綱領을大膽로放言力說한點에그强烈한氣概가存한다 그러고胡適이退步함을許치아니함은아니라 君은爲하야서는百萬軍以上의聲援을與하리라고高唱한다. 胡適의改革動機가破壞에偏하고 建設에迂한憾이不無한데 陳獨秀는中國文學의前路를指示하는點에그强點이有하는터이다 然則文學革命에對한陳獨秀의位置는明瞭하지아니한가

北京大學敎授 劉半農 錢玄洞等은淸末第一流의碩儒章太炎의高弟이나 敢然히起하야 此文學革命에呼應하얏다 就中에도漢學에通曉한點에在하야 胡適에게遜色이無한錢玄洞과如한人士가非常한稚護로써 此運動에應한點에 文學革命의成功이存하는터이다 吾人은 그文學改革의識見에在하야 또改革意志가鞏固한點에在하야 錢玄洞은胡適以上의人物인줄을知하되 엇던中國新人은言하되「白話文學은 其源流가實노章太炎에서發한다」고하얏다 吾人은그言을否認할수업는줄을認定한다 章太炎이日本에서學을講할새「故凡有句讀文 以典章爲善 學說行之疏證類亦往々附其居其列 文皆質實而遠浮華 辭尙直裁無濫辭(國粹學報」十二期)이라고唱하얏다 此는全然히 桐城派 選學派의弊를破한것인데 實로直接으로文學革命의旗幟이다 胡適이如何히知者이라할지라도 章太炎門下의錢玄洞 劉半農이此에呼應하지아니하고 同門의周作人이白話의美文을作하지아니하얏드면 文學革命은到底히그와갓흔成功을收하지못하얏슬것이다 그럼으로茲에敎育으로써 그文學革命의根源을明白히한다

八、胡適의新文學建設

革新派의言을藉하면「改良」은「良」을改하야惡을造한다」만다 胡適의「文學改良芻議」에는通俗文字가散見하지아니하는것은아니나 그러나純然한白話로써作한것은아니얏다 그러나「建設的文學革命論」에至하야는 全然白話 아니라官話로써書하얏다 白話는무엇인가 石山福治氏의中國語辭典에依하면 白話는談話, 言文一致다하얏다

文學革命은胡適의簡明와同時에一段의展開를示하얏다 一九一八年四月十五日發行「新靑年」四卷四號에揭載된「建設的文學革命論」은 勁興하라고하는新文學을爲하야의確한向方을指示하얏다「學林」에 羅家榮은云하되「此一篇의文章發表後 白話文學에對하야 懷疑하든者도그想度를變하게되얏다」고하얏다 此一篇의及한바影響을想像할것이아닌가 吾人은「建設的文學革命論」을抄譯할必要와義務를切實히感한다 如何히忍耐力이缺乏한讀者라도 此는一讀할必要가有하니大槪此는中國의時代와向方을知하기爲하야서는絶好한材料가될것이다

胡適著建設的文學革命論(抄譯)

(一)

……文學革命은當然히破壞로부터開始하여야할것이나 現在桐城派文學中에는一毫의價値를有하는者도無하다 桐城派 文選派 江西派 夢窓派 聊齋志異派 此等무엇인가 모다僞文學死文學이아닌가 此等은破壞할것도업시 新文學이出現만하면 直히消滅되고말것이라 그럼으로吾等文學革命論者는 此等陳腐한文學에代할新文學을創造하면足하다……

(二)

余의「建設新文學論」의主旨는「國語的文學 文學的國語」此十字에盡하는것이라 吾等은中國을爲하야國語文學을創造하라한다 國語文學이生하면 비로소시 文學的國語가有할것이다 中國에二千年以來로 價値와生命잇는文學이發生치못한것은 死文學, 死文言으로써 文學을作하야온까닭이다…… 木蘭辭 孔雀東南飛의兩詩 陶淵明의詩와李後主의詞, 杜甫의「石壕吏」「兵車行」을吾人이何故로愛讀하는가하면 그는白話로作한까닭이며 韓愈의「南山」을愛讀치아니하는理由는 그것이死語로써作한까닭이다……近世文學에在하야 水滸, 西遊, 儒林外史, 紅樓夢을活文學이라하는所以는白話로써作한까닭이니 萬一施耐庵 邱長春, 吳敬梓, 曹雪芹等이白話로써하지아니하고 文言으로써作하얏슬것갓흐면 아마死文學밧게는能히産出치못하얏슬것이다……

우리말과글에對하야(三)

우리글의가로쓰기

崔鉉培(寄)

第一章 우리말과글의過去(續)

第一節 우리의말과그의由來(續)

또 그 담에우리글로쓰는 여러분이 다 아시는바와 가치 吏讀(吏道)라는것이외다 이는 新羅神文王十二年(西紀六九二年距今一二六二年前)에 薛聰이란이가지은것이외다 大體로 말하면 意義文字인 漢字를 빌어다가 우리조선말의 소리를 적는發音文字로 變用한것이외다 그런데 或은 그 字音을 쓰고 或은 그 字訓을쓰는것이외다 假令

漢字音을씀것
羅 乙 果 尼 面 匪 伊 里 時 矣

漢字訓을씀것
爲(하) 飛(날) 是(이) 白(살) 向(안) 事(일)

그런대 漢字는 그 劃이 넘어만아서 쓰기에 不便한바문에 그 劃을 덜어버리고 略體의 吏讀가 생겨낫습니다 곳

漢字音을쓰는것
弋(代의傍) ア(面의上半) ㅁ(古의下半) 又(難의略字) 夕(多의半) ㅈ(奴의傍) ㄱ(也의上半) ㄷ(尼의下半)

漢字訓을쓰는것
飞(飛의上半) ㅂ(是의上半) ㄴ(是의下半)

과갓혼것이외다 이 吏讀는 午吏張씨가지는 官廳의 公用文에 漢字와 석거 쓰혀엇스며 또 漢文의 토로 만히 쓰혀엇스되 그다지 큰勢力을 가지지못하얏스며 널아 發達도 되지못하얏스나 이것이 日本에 건너가서 그곳에서 오늘까지 큰 所用이되고잇습니다 今日 日本의 假名文字가 新羅吏讀를 배화어든것이라함은 余의 獨斷이아니라 日本語와朝鮮語를 專門으로 硏究하는 金澤庄三郞氏는 實例를들어서 이를 證明하얏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넘어 煩雜한故로 이것은 말하지아니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한가지의 疑問이 일어납니다 다름이아니외다 三國史記에 薛聰이 方言으로써 九經을 解釋하얏다는 記事가 잇습니다 或은 각아며 九經을 解釋하얏다함은 곳 漢文에 토닥기를 始作한것이라하니 그럿타면 모르거니와 萬若그럿치아니하고 九經의 뜻을 우리말로 解釋하얏다하면 이 吏讀로써 果然 넉넉이 우리말의 소리를 다적어낼수가 잇섯슬가? 或은 다른 文學의 製作이 잇서 그것으로 解釋하얏는지? 그리하야 그것이 訓民正音의 基礎가 되얏는지? 이것도 도모지 史錄이 업스니까 다만 疑問으로 想像할따름이올시다

그 담에 우리가 方今 쓰는 한글(諺文)이라는것이옵시다 이는 李朝第四世 世宗大王께서 成三問 鄭麟趾 申叔舟 崔恒等諸臣을 命하사 助力케하시고 二十五年(西紀一四四三年距今四八○年前)에 지으시사 二十八年에 中外에 頒布하신것이외다 이글은 오늘날우리가 諺文或은反切이라고 부르지마는 이는 다後世의 自侮自卑한 名稱이외다 世宗大王께서 頒布하신 이름은「訓民正音」이라 하엿습니다 이제 그 全文을 당에 적나이다

國之語音 異乎中國 與其文字不相通故 愚民有所欲言 而終欲不得伸其情者多矣 余爲此憫然 新制二十八字 欲使人人易習 便於日用耳

ㄱ(牙音) 如君(군)字初發聲 並書如虯(규)字初發聲
ㅋ(牙音) 如快(쾌)字初發聲
ㆁ(牙音) 如業(업)字初發聲
ㄷ(舌音) 如斗(두)字初發聲 並書如覃(담)字初發聲
ㅌ(舌音) 如呑(탄)字初發聲
ㄴ(舌音) 如那(나)字初發聲
ㅂ(脣音) 如鼈(별)字初發聲 並書如步(보)字初發聲
ㅍ(脣音) 如漂(표)字初發聲
ㅁ(脣音) 如彌(미)字初發聲
ㅈ(齒音) 如卽(즉)字初發聲 並書如慈(자)字初發聲
ㅊ(齒音) 如侵(침)字初發聲
ㅅ(齒音) 如戌(슐)字初發聲 並書如邪(샤)字初發聲
ㆆ(喉音) 如挹(읍)字初發聲
ㅎ(喉音) 如虛(허)字初發聲 並書如洪(홍)字初發聲
ㅇ(喉音) 如欲(욕)字初發聲
ㄹ(半舌音) 如閭(려)字初發聲
ㅿ(半齒音) 如穰(양)字初發聲
ㆍ 如呑(툰)字中聲
ㅡ 如卽(즉)字中聲
ㅣ 如侵(침)字中聲
ㅗ 如洪(홍)字中聲
ㅏ 如覃(담)字中聲
ㅜ 如君(군)字中聲
ㅓ 如業(업)字中聲
ㅛ 如欲(욕)字中聲
ㅑ 如穰(양)字中聲
ㅠ 如戌(슐)字中聲
ㅕ 如鼈(별)字中聲

체르캇슈 (오ー리키ー)

瞬星生

二六

체르캇슈는 몸이, 지금 眼前하고 懶다운 故鄕의歡風을 밧는듯하게 쉬각낫다. 그보드러운 바람은 그의귀에 그리우는母親의이야기, 큰소々한 農夫인 父親의明確한 말소리, 其他各種의 이러던사람의 목소리, 物件의소리를부러보힌다. 엇더케든 눈에 켜젓고 엇더케든 가란고, 엇던때는거퍼 收穫의 黃金色의 푸른집으로 덥이는, 自己 난故鄕의 울음 버음은 香氣도 풍러온다. 그리하야 그는, 世上에서 버린봄을상하고 孤獨하고, 또脈管을 通하는 피가 뛰여노는 人生의몸는 지금그殘闕엇게세커나와, 自己나々다리난, 自己의 가이엽슴을, 세삼스럽게 집허 늣기엇섯다.

「여보, 나는어대로 가나」하고 별안간 가부리엘이 무럿다

체르캇슈는 깜짝놀래이러나, 猛鳥와갓흔, 安心되저 못하는듯한눈으로 四面을 돌아보앗다

「홍홍, 엇더케던지 마음대로 하렴으나, 내가 아니… 힘드려, 커어! 얼마아니… 陸地다。」

「무슨 걱정이잇소?」하고 가부리엘은 씽긋우스면서무럿다

체르캇슈는 벌써 相對者를 보앗다. 젊은者는 아조 元氣를 恢復하야, 마음이 沈着해지고, 愉快해져, 一種得意하면 勝利한듯한 氣分이되여잇다. 그는 아즉 아조若輩다. 一生의 成敗가 모다 前途에잇다. 그러것만 아모것도 自己가 아는바는 업다. 비보다●●● 마음이 불나는것은 土地따위갓혼것이다. 이러한생각이, 체르캇슈의머리에 번쩍나매, 더욱々々골이 나서, 가브리엘의 말에 對하야도, 自然히 거칠게 對答을하게되엿다.

「나는 疲困해왓다……」

「참 그대, 이러케 혼날니다가는……푹삭 빠지지나안켓나」하고, 다시 못고, 살작이 발로 보홍이를 건되려보앗다.

「무얼……念慮업나! 어서 땅나 그것을 주고 돈을만드러 알려인데。」

「五百인가」

「그리 그러켓지。」

「큰돈이로군。 나갓흔 구차한 사람손에 그것이 드러오고만보면 나는 뛰며들어가면서 소리다도하겟지만。」

「거를넙새 나는것은 말이지。」

「그러치。 그러고나서는 엇든々々닷불감지。」

그러자 별서 그림에 對야 가브리엘은 여러가지 交涉의 便개를 탓다。 체르캇슈의 便은 漸々쓸쓸하게되는듯하다。 입술은 축처지고, 원便하리는 불밝음에 첫고, 눈은 잠기여 光彩가업서섯다。 모든 몸시 숨은 氣象하잇다。 얼골에 나타난 殘忍의빗은 모도 깁혼 沈思中에 잠기여잇는듯이 보이엇다。 더러운 져삼 주름사이에까지도 變態의빗이 배엿다。

「困해? 나는 아모런지도아니한데……당신이 너무일을 過히한것이아닌가……」

「인제 얼마안남앗다……커々……커기다。」

체르캇슈는 소옥 배를 몰녀 方向으로 키를 向하야잣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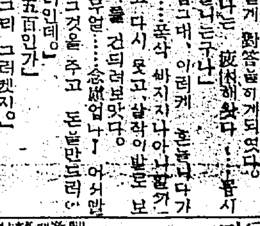
하늘은 또 구름에 꽤여 비가 뗘러지기始作햇다—마음 爽快한, 따뜻한 비는 부실々々 소리를 내며 愉快히波頭를어렷다

「애—솔々해라」하고 체르캇슈는 命令하얏다。

배머리가, 엇더한 세뭇며잠미 배허리에 부되켯다。

修正三版 中東學校長 崔奎東先生著
中等敎育 算術新敎科書
活文社書店

生徒募集
晝學部 高等, 初等科, 補缺 中學科新設
夜學部 數學科(算術代數幾何三角) 語學科(國語英語)
京城府壽松洞八五
中東學校 電話三六二三

本機의成績은第一等으로決定되엿다

稻扱
帝農社

特製 淋疾藥 ……
天恩堂大藥房

新刊書籍案內
▲奇人奇事錄
▲偉人의聲
▲小說 단소
▲小說 罪惡의씨
▲東西古今
發行所 文昌社

高等洋服裁縫術實習生募集
本所는優秀한斯業技術者를養成함으로써目的으로함
一、速成科 授業期間 壹個年
一、修業科 同 貳個年
一、本科 同 參個年
一、募集人員 男子五十名 女子二十名
一、出願期日 大正拾壹年九月十四日迄
一、授業開始 同 十五日
一、授業料 各科共五拾圓先納事
一、特典 [illegible]
京城府本町一丁目
高等洋服裁縫術敎授所

薔薇花園
活動寫眞프로그람 八月三十日下午八時
一、實寫 山間紀行 全壹卷
一、喜劇 新婦의危難 全貳卷
一、活劇 雪中에格鬪 全參卷
一、連續活劇 蹄에響 全五卷
每土曜日 日曜及水曜日下午八時는반드시開演함 入場料五拾錢에淸凉飮料를갑슴고淸雅한曲調를드르십니다
寫眞供給者 安連氏
朝鮮호텔

陳久積滯 百發百中滯症神藥
破積丸
壽星堂藥房

◆本報의廣告
本報를보시고廣告主의게往文或交涉할時는東亞日報廣告를보신일을明記하시오

電氣 鼻治液
再生堂藥房

大正拾壹年九月壹日부터開業
營業科目
金錢貸借仲介, 動産不動産有價證券賣買及貸借紹介, 事業設計, 計算引受, 廣告取扱, 保險仲立, 訴訟紹介, 諸般代理業
匿名組合 大成社
總務理事 尹定夏

普成專門學校生徒增募
出願期日 九月六日까지(願書在校)
試驗期日 九月八、九兩日午前九時
試驗科目其他詳細事項은本校來問 願書要添付最近寫眞

協成學校補缺生募集
募集人員 中學科 初等科
協成學校

大成講習所學生增募
中等科一二三部 初等科一二部 英語科一二部

漢城講習院生徒募集
初等科一二部▲中等科一部▲高等科一部
出願期日 九月十一日까지
市內樂園洞

ClibPDF - www.fastio.com

獨逸에代表派遣要請
獨政府「헬메쓰」派遣意思

聯合國賠償委員은獨逸에對하야支拂猶豫期間의經過後支拂을履行하라는誠意잇는宣言을行케하기爲하야八月三十日까지에其代表者를巴里에派遣하라고要請하얏는데獨逸政府는「헬메쓰」氏를派遣할意嚮인듯하다더라(巴里二十八日電)

英國賠償委員의主張

＝聯合國賠償委員會英國委員「쁘래드쁘리」氏는獨逸을破產管理人의手에移하라고主張하얏는데即彼의提議에依하면支拂猶豫期間中에在한獨逸國債를檢定하고其豫算의收支를符合케함은馬克時勢를確實케하는唯一手段이며且獨逸의利益에合致하는것이라云하고若獨逸에充分한猶豫를不與하면獨逸財政은破產될터임으로同國은如何든지破產管理人의手에移하며尙且彼로하야금充分한休息時間을與치아니치못하리라고云하얏다더라(巴里二十八日發)

佛首相의對獨威脅

＝獨逸大藏次官「쏘레르-」氏는賠償金支拂問題에關하야聯合國賠償委員의게說明키爲하야巴里에出張하얏는데賠償委員이三十日에行할決定이佛國에不滿할時는「루-르」炭坑地域을占領하겟다고佛首相은威脅하얏다더라(伯林二十九日發)

英佛意見不一致

＝賠償問題에對한廿八日佛英兩國新聞의論調는三十日賠償委員會에서同問題의解決을見하기로도期待치아니하는模樣이며新聞은「쁘랏드뻬리-」「오-쿠랜」兩氏는伯林으로부터歸還하야도委員會에서直히贊成決定할만한提案을齎來한듯하지아니하며同問題에對한英佛兩國의意見이到底히一致함은不可能이라고云한다더라(巴里發)

獨逸에破產繼起

＝獨逸經濟狀態가窮迫함으로因하야帝國銀行은二千金貨馬克에五千紙幣馬克을支拂하는等各處에破產될兆徵이有하다더라(伯林二十九日發)

政府奢侈禁止實施

＝獨逸政府는食糧制限奢侈禁止를徹底的의大英斷으로行하야暴力으로써賑倒할施設을行한다더라(伯林電)

米의獨財產管理說
馬克市勢急然昂騰

獨逸은賠償委員會에對하야支拂延期를希望하얏는데風說에依하면米國은近々獨逸財政狀態를調査하고其結果로獨逸財政을管理할것이라는說이有함에對하야馬克時勢는一萬乃至九千馬克으로부터一躍六千八百馬克으로恢復되얏다더라(東京電)

國際法律家會議
四十個國代表가參列

當地에開催中인國際法律家會議에는四十個國代表가參列한바全世界의刑事犯罪者를處理하는永久的國際裁判所의設立에關한英國의提案을可決하얏다더라(베노쓰아이레쓰二十八日發)

聯盟會에英佛反目
『쥐니쓰』及『모로코』에關한問題

國際聯盟總會席上에서『쥐니쓰』及『모로코』에關한事로英國은會議의協議事項에一動議를提出하야英國의苦情을述하얏는데即佛國이其領土가아니오單히保護國인『쥐니쓰』『모로코』에서出生한英國人民의게對하야佛國의國籍을强制하는權利가無함을主張하고且英國의臣籍을有한人이佛國軍隊에强制로入隊케된點에就하야苦情을述하얏는데右에對하야佛國은保護國內에出生한外國人의게對하야佛國의國籍을有케하는主權이有함을論하야彼我의抗議를仲裁裁判에付한다함으로英國은八月三十日聯盟理事會에意見을開陳할터이라더라(倫敦電)

炭坑罷業解決乎

「可能性」「르」州元老院議員「페파-」氏는政府의干涉을不待하고無條件으로同盟罷業은至急解決하다는意見을表하얏다더라(華府廿八日發)

炭坑國營과鐵道

米國議會는炭坑國營案의通過를見할터인바鐵道國營은反對說이多한터이라(華盛頓電)

市俄古鐵道罷業

市俄古「알톤」鐵道西部線에서運轉手,火夫,車掌,轉轍手等이罷業을行한所以로運轉은全然停止되얏다더라(紐育우이쓰二十八日發)

鐵罷解決復會商
依然古參權存續이問題

紛々하든鐵道罷業의解決에努力中인鐵道友愛組合의調停者와鐵道側과의交涉은延期되야아직秋毫도協定이成立될模樣이無하다함은兩方의公言이라然이라平和的解決의途가全然杜絶한것은아님으로兩者는又復會商할터인바鐵道幹部는依然罷業者의古參權存續의要求에對하야頑强히反對한다더라(紐育電)

艦渠勞働大罷業
警官과衝突死者多數

佛國「하-불」港의船渠勞働者六千名이同盟罷業을開始하야取引은停止되고海員其他는二十四時間同盟罷業을行한바警官과市街戰을演하야多數한死傷者를出하얏다더라(倫敦二十八日發)

巴里勞働者의同情罷業

＝巴里에在한各勞働團體는「하-불」의同盟罷業에呼應하야同情罷業을斷行함을要求하얏는데極端派新聞은盛大히激動하야彼等이戰에參加하기를勸하고政府가「하-불」同盟罷業에干涉한事를猛烈히攻擊한다더라(巴里二十八日發)

佛國政府軍隊를派遣

＝佛國政府는「하-불」에在한同盟罷業의秩序를維持키爲하야同地에軍隊를派遣하얏다더라(「하-불」二十八日發)

十萬職工의失業
石炭不足으로「포-드」工場閉鎖

自働車王「헨리-포-드」氏는石炭不足으로因하야同氏經營工場의作業을九月까지停止함을發表하얏는데此로因하야同工場職工十萬은職을失하게되는바「포-드」氏의工場閉鎖는產業界의甚大한危機의切迫한것을示하는것이라고推信한다더라(紐育二十八日發)

近東에風雲愈急
希土戰再開激烈

小亞細亞에서軍事的行動이再開된事實은確實한바「아텐쓰」來電公報에曰「戰鬪는過去三日間에亘하야不絕히「아갈」河로부터「칻싼쎄」間에서繼續되얏는데土耳其國民軍의(未詳)은大砲及軍備品의準備가充分한十個師團이라하며又君府來電에依하면土耳其國民의直接目標는鐵道를奪取하야「쓰뮐나」「필사쓰」兩地方의希臘軍의根據地를孤立케함에在한듯하더라(倫敦二十九日發)

國際經濟會開催

獨逸新聞協會主催下에서國際經濟會議를今明開會하얏다더라(伯林二十九日發)

瑞典禁酒否決

瑞典에서一般으로投票한結果同國禁酒法案은八十五萬九千票에對한九十五萬三千票의多數로써否決되얏다더라(「스톡크홈」二十八日發)

獨商品博覽會

「라이푸치히」秋期博覽會는本日開會되얏는데商品出品이一萬三千點이며入場者가十萬에達한다더라(伯林二十九日發)

露紙의日智交涉觀
『日本의軍國主義는不可不對抗』

莫斯科八月下旬露國半官報「이쓰웨쓰챠」의日露交涉觀은日本은果然撤兵에誠意가有한지疑問이라尙且日本과通商을開始할지라도露國은何等所得이無할터이며日本은必히海參威要塞及露國軍의武裝解除를要求할터이나斷然코此를許치아니할터이며露國은早晩日本과紛爭關係를惹起할터인바露國은米國과親善하야써日本의軍國主義에對抗치아니치못하리라云々(東京電)

鐵道大爆破計劃
沿海州赤色「파르티산」隊長

沿海州「아누치노」赤色「파르티산」隊長「쉐프쩬코」는今回一千五百名의赤色「파」隊를編成하야尼市「보로라니치나야」浦潮「스이야기」의間鐵道大爆破를計劃하는바各支隊는砲一門式을有하얏다더라(某所着)

鐵道爆破團員募集

＝沿海州興凱湖의西岸「가멘스이볼르」에根據를有한赤色「파」隊本部에서는初旬부터鐵道沿線各地에鐵道爆破團員을募集하는바目的은日本軍撤兵時期에關하야一齊히蹶起하야海參威「스스카야」間의鐵道를破壞하고白軍의輸送을阻止케할計劃이有하다더라(某所着電)

資本主義復活乎

露國勞農政府는株式會社令을公布하야漸次資本主義制復活의兆가顯著하다더라(東京電)

陳唐兩氏提携하야
聯省自治企圖乎

陳烱明氏는聯省自治의主張下에新政黨을樹立하고唐紹儀氏를推戴할터인바唐氏는陳氏를輔하야統一을企圖할터임으로此는現今可能性을有하다觀測하더라(上海電)

駐屯軍撤退問題
英米伊佛의不同意乎

北中國駐屯軍撤退에關하야日本政府의訓令에基하야小幡公使는英米佛伊等各國公使와非公式으로交涉한바가有한데英米伊佛公使等의意見은駐屯軍撤退는治外法權의撤廢와關聯하는것인즉兩問題를同時에研究할必要가有하다하야同意를表치아니하는所以로同問題는自然停止되얏다傳하더라(二十九日發)

長沙戒嚴

二十九日以來戰鬪가猛烈하야遂히長沙에戒嚴令을布하얏다더라(上海電)

日中官憲衝突

二十八日午前九時奉天驛前千代田通에서馬賊騷動이發起한事實은目下當局에서取調中인바報道할自由가無하나仄聞한바에依하면今回新設警兵한張作相氏의部下로元馬賊兵士十三名이中國料亭附近에來하야徘徊함으로日本官憲이誰何한즉不應하고突然發砲하는不詳事를惹起하얏는데此急報를接하고即時活動을開始하야四名을逮捕하얏스나他는行方不明으로目下嚴探中인바日本巡査一名은全治五週間의負傷을當하얏다더라(奉天電)

山東討議事項
第二部委員會

山東細目協定第二部委員會第九回會議는本日開會하얏는데討議事項은左와如하다더라 本委員會는鐵道評價分科會의提出한報告書에對하야其不同意의點은同意의點을不問하고대로一括受理하기로하얏스나該報告書를基礎로하야分科會로하야금直히實地調査에當케하야其査定을終了한後本委員會에서再次審議決定하기로하얏다더라(北京二十九日發)

外蒙撤兵
交涉條件

勞農政府代表가對中交際의前提로하야其承諾問題로外蒙撤兵條件은左와如하다더라

一, 撤兵後蒙古代表參加
二, 中國兵防備의任에當할것
三, 「고-헤기얄-」等을繼續
의三項을要求함(北京二十八日發)

東鐵管理廢棄
協定近々發表

中東鐵道에關한管理協定은日本의沿線撤兵과共히當然廢棄하기로되얏는데米國政府는關係諸國에其旨를通報한바日本은贊成의意를回答하얏는데不遠此에關한往復文書가外務省으로부터發表될터이라더라(東京電)

對中借款拒絕

一千五百萬元의對中借款申込에對하야政府는此를拒絕하기로決定하얏다더라(東京電)

三稅改廢案

政府에서는通行,地租,所得의三稅에對하야改廢案을決定한바四十六議會에提出하기로한바此로부터減稅될總額은三千萬圓에達할터이라더라(東京電)

普選實施有意
加藤內閣

加藤首相은普選問題에就하야明確한決意를未定하얏다할지라도亘久的의時代와人心의困惱이더할普選問題도遂行할機運이稍熟한 [illegible]

引下決議
最善方法을實行

[illegible]

物價調節
必要와方法

[illegible]

國黨解體順序

國民黨은昨二十八日午後四時上野常盤華壇에서臨時幹事會를開하고犬養總理는近藤淺遂幹事가出席하야九月一日開會할臨時大會의順序를次와如히決定하얏더라 (一)九月一日午前九時本部樓上에서評議員會를開會할(二)評議員會終了後는引繼代議士評議員代議員聯合協議會를開會할(三)午後一時부터臨時大會를開催하며其順序는(가)開會辭(나)會長選擧(다)犬養總理演說(라)解黨宣言

政府所有米下賣

政府는九月四日大正十年度의所有米六萬七千石을民間에賣下할旨를發表하얏다더라(大阪電)

銀行預金의激減

高率社債發行結果近時短期高率의社債를發行하야社債에來로定期預金을引出하야社債에應募함으로預金이激減되야銀行에서는此의停止策에腐心中이라더라(東京電)

撤兵開始順序

撤兵에關하야聲明한바와如히沿海州派遣軍은第九師團을爲始하야第八師團도十月二十五日까지에는哈爾賓地方全部를撤退한다더라(東京電)

守備隊撤退聲明

＝滿洲獨立守備隊의撤退에關한趣旨는近々陸軍省으로부터聲明發表하기로決定하얏다더라(東京電)

教科書의自給自足期

去大正九年以來朝鮮總督府印刷所의職工의勤務時間을改하야一日九時間으로한 [illegible]

現業

[illegible]

勞銀

[illegible]

激增

[illegible]

金組區域變更

[illegible]

私營造林狀況

[illegible]

郵便小包增加

[illegible]

一日電報通數

[illegible]

最近東京金融
預金貸出減少

[illegible]

新設公立普通學校

[illegible]

地方改良講習

[illegible]

消息

[illegible]

橫說竪說

[illegible]

商況

京取肩代解決

[illegible]

代用價格改正

[illegible]

日本金利及市況

[illegible]

京城手形交換

[illegible]

外國經濟電報

[illegible]

大阪株式 三十日前場

[illegible]

株式市場 大新反落 京取六十圓臺割

[illegible]

短期取引

[illegible]

京株實買價

[illegible]

八月限의戰跡

[illegible]

穀物標準價

[illegible]

綿糸布標準價

[illegible]

大阪期米 三十日前場

[illegible]

ClibPDF - www.fastio.com

大阪三品(低價納會)

今朝天候는亦是快晴에各地氣配는成强成弱으로傳하얏더라 節々低移되야五節三十一錢까지 低價를傳하얏슴으로十九錢까지 急轉하더니二十錢臺에서彼此相 로四五錢五六錢에서細刻하다가 三十三丁急低三十一圓十一錢을

▲第一節 當은納會에中은不成 이오先限은大阪初付昨正價보다 三十三丁急低三十一圓十一錢을

▲第四節 當納會에中은三十圓 ▲第六節 當納會에中은不成이

高價	三十圓九十五錢	
低價	二十九圓八十九錢	
當限	納會	
中限	三十圓三錢	

東京 三二、六六 大阪 三〇、八八

不安中의高興人民

고흥사건에대한경찰발표는 실디조사와는전혀반대이다

光州에서 特派員 金井鎭發信

고흥경찰서 순사대(高興警察署巡査隊)가 태을교도(太乙敎徒)를 중심한사건에대하야는 임의 나(목피원)의 실디조사한바를 련일보도한바어니와 사건이 발생한처소가 전라도(全羅道)중에도 남편바다가에잇는 고흥이매우 불편한곳임으로

현장에서 조사한 진상을 간단히뎐보로써 겨우 그대강을 보도하기에 긋치엇슴으로 이에 다시 현장의진상과 경찰관원의 태도에대하야 조사한실디를 보도코자한다 현장의사실은 그곳에모히엇든 태을교도나 또는군중이조금도 경찰관에게 대하야 폭행을한사실이 업는데 경찰대들은 함부로총을노아서 량민을 죽이엇고 문데가 사회에들어남에 소관경찰서에서는 예긔이상의소동을 이르키어 경찰부에 보고를하느니 경무국(警務局)에 급보를하느니하야 흡사히현장에서는 군중이 대폭행을한것갓치 도리혀경찰편에서 사건의 몃배나되는 소동을 이르키엇고

하향동민 이평일에 자긔들눈에는 아모리 가치업시 보이엇더라도 중대한생명을 살해하게되얏슴으로 후일에는 여하간 사회의큰문데를 이르킬듯함으로 현장에서는 될수잇는대로 구실거리의증거물을 다수히 압수하얏다한다 증거물중에는 현장의사실과는 얼토당치도 아니한독긔와 그릇깨어진 조각등을 다수히가저갓스며 또경찰편의발표를보면 그때 현장에서는 군중이 호미와괭이등의농구를 휘두르고 대항하얏다하나 그러한사실은 절대로업섯다한다 그뿐만아니라 농구등으로써 대항하얏다는것은

상식으로 써충분히 판단할수잇다 지금시골에는 뎐답의 농사가 거의끗이다나고 한참동안농부들은 정자나무밋에서 서늘한바람이나 쏘이어가며 입담배나 태일배요농구는 갑히싯처 두엇슬배요,또현장에는 술과음식이 버려진잔채마당이라 아모리농부의 항상사용하는 긔구라할지라도 이러한연회에까지 농구들을 가지고올것은 물론업슬것이다 그뿐만아니라 현장에 모히엇든 군중은 그동리사람들과 또는길로 지나든행인들이 차일을치고 잔채를하는 광경을보고 모힌사람이 대부분이엇슨즉 물론그곳에 모히엇든 군중들은

일치행동 을 취할수업는것은 무엇보다도 명확한사실이다이와가치 현장의진상을 조사하면 조금이라도 군중이경찰관에게 대항한형적을 어들수업스며 또평시에 그곳인민들의 생활상태와 순박유순한 그농민의 텬성으로는 도뎌히 경찰관에게 대항할생각을 내일수가 업슬것은사실이다 고흥은 전라남도중에도 궁벽한곳이요 문화의정도로보더래도 다른도회처 보다는 오히려 밋치지못한것이 만을뿐아니라 그곳주민들은 산곡농토에파뭇처서 낫이면 들에서농사나짓고 밤이면집신이나 삼어서 련부한농부의 생활을 계속하는 까닭에 그들의생활은 아직까지도

원시상태 가 더욱만히보이며 혹시의관을한 면사무소원이동리에만 드러와도 얼골을바로들고 말한마듸를 대답히대답하는사람이 업고 만일순사가 칼이나차고 지나가든인민이라도 길가으로피하야 황송히허리를굽부리고 지나가는것이 이디방농민의 평일의 관에대한 순량한태도인데 엇지하야 경관에게 대항하리요현장에잇든독긔는현장에서음식을하기위하야나무를패든것이요긔명의깨어진조각은순사의총에사람이

죽는것을 보고 군중이도망하는바람에 깨어진것을 순사에게대항하든 증거품이라고 가저갓다한다 이번사건에 경찰편에서는 될수잇는대로는 정당방위로 구실을삼으려고 백방으로 고심하는중이나 현장의 진상과 그곳농민의성질로 보아도 도뎌히대항을 하지아니한것이분명하다 그뿐만아니라 남의 종교의긔도를올니는신성한식장에 처음부터 륙혈포를가지고위협하려 출장한경찰서의 태도가 얼마나 평시의그곳인민을 멸시한것을짐작할수잇스며 또

경찰편의 발표로보면 처음에는 헛총을노핫다 주장하나 현장을 목격한 그동리사람들의 말을드르면첫방에 박병채(朴炳采(혹은宋文謨))가즉사하고둘재방에 로자근(盧自斤)녀자가 부상한사실을 보아도 처음부터 함부로 실탄을노흔것은 사실이다 여하간그디방에서는 지금도 오히려 인심이 안정되지못하고 결국참혹히 량민만총살을 당하고 문데가흐지부지되야서는 인민이 안심하고 살수업다는것이 주민들의부르지즘이다

◇총살당한박병채의가뎡 ―안준이가그의모친 섬이가그의처―(본사려수지국사진반의박한바)

裸體를亂刺하야

新潟의殺人境―穴藤踏査記(九)

눈구덩이에세시간이나무더 산장사를지내는학대의실례

特派員 李相協

조선인로동자 학살이나 학대이니하는 문뎨의중심은 실로뎐긔소개한 중도(中島)라는자의 반장과 큰두령 령목승자랑(鈴木勝次郎)의 아우삼승(三勝)이라는자의 포악이더욱심하야 과연학대인지

학살인지 분변치못할만큼조선인로동자에게 참혹한행동을 만히하얏다 삼승이라는자는 자긔의동무와게 쌈홀할때에도 산에서 큰몽치를 드는데 쓰는사오십근의몽치를 들러메이고 싸홈을한다는자로 본래의성질이 사갑기는자로 그중에 술을비상히 질겨하야 주야당련에 별로깨여볼여가업는데 술만먹으면 그잔인한련성은 더욱 혹독하게되야 사람으로서는 목석의게도 도뎌히하지못할일을 사람의게 대하야 상쾌히녀이면서하는자이다 삼승이라는 조선사람로동자의 도망하는것을 붓잡아서 중문의 려관에서부터

모든악형 을하얏다는것은 일전에도 긔록한바어니와 그외의몃가지 악독한련례는 역시 듯기만하야도 몸서리가난다 밀양군밀양면 활석리(密陽郡密陽面活石里)에 원적이잇는 김갑렬(金甲烈)이라는 로동자는 금년십구세의소년으로 톄질도 아즉장셩이라 할수업거늘 삼승이라는자는 일을식힐때에는 한사람의목을 다식히며 삭전은한사람의목을 주지아니하야 어린몸의 세찬일을 감당키어려울뿐 아니라 몸동이와주먹에 생명을지팅할수가 업슴으로 엇데케하든지 악마의굴혈을 면하고저 항상틈을 엿보다가

금년이월 어느날 필경도망하야나 왓스나 얼마가지못하야 압흐로는 유명한백여리의그물에 둘러싸히고 뒤으로는 풍우가치 몰려오는 두목의종류의게 다시 붓잡힌몸이되얏는데 두목 삼승이라는자가 네모진 참나무몽둥이로 사다듬이를한것은 고사하고 갑렬이를발가벗겨서 경박을지며 노코 일본사람이 석탄이나 곡식섬을 부리는데쓰는 낫과가치형상이되고 나무자루에 쇠갈구리를다라서 물건을 찍어올니는 연장으로

산사람의 련약한살을 오록커이나 찔럿다 더욱이 이월이라하면 음력정월초순이라 도회의치위도 심하려니와 심산궁곡의혈등(穴藤)디방에는쳐설이집을넘고 삭풍이살을 어이는째인데 독이오른삼승이는 이것으로도오히려 부족하야 전신에 피를흘니랑자한 갑렬이를 눈구덩이로쓸고나가서 세시간이나 눈속에다가 트러박아두엇스며 그이튼날부터는 여러사람을 경계하기위하야 징벌하는 셰음으로 나가서일을하라고 또한한매가 심하얏스나 갑렬이는 이주일동안이나몸을 움직이지못하고 감옥실컴컴한 구석에서 계반고통을격것다는데 악마의손에

쇠갈구리 로 찍히어쥐는

아직도현면하야 우리일행의 가당을쉬놀이게하고 또한피를 부글부글끌케 하얏다 이러한일은 권하는리약이나 듯는디옥의 형벌에서 잇슬듯한것이오 아세상에서는 도뎌히잇스리라고 미들수업는일이다 그러치마는 사실로미와가치 악독한일이 잇스니 그이외의짓은 과연무엇을 하저못하랴

三人을灰石生葬

악독한이무리가무슨짓을못할가

그후에역시 삼승의반장에서 우덕동,우운청,우인찬(禹德東禹九成禹仁賀)이라는세사람이 입을모으고 도망을하랴다가 또한 삼승의게 잡혀서악형을 당하얏는데역시

삭풍한설 의산중에서 발가케벗겨가지고 혈관까지 고다오를찬물속에다가 집어 너엇슬뿐아니라 사람을벌거버슨 대로 절박하야 술더만치고 그우에다가양케로 다리를노틋이 바둑돌과양회를 석거서쌔아노코 그우에다가물을 드려부어서 그대로 버려두엇나 다행히다른 동무의 애걸로 세사람이 거의 긔절을하게되얏슬때에 푸러노앗기에 목숨은부텃지마는 세시간이 지나서만일사람욱콩크리트로다진 그것이 청석이되얏드면 가련한 이세사람의 운명은엇지 되얏슬가이러한 공사에경험이 잇는일본사람의말을 드르면 전일에는 일본사람 로동자도 만히학살을

私信까지盜見하고

도망군이가치 학대하는두목무리

신명옥이와 권원룡(申明玉權元龍)이라는 두사람이잇섯는데 이사람이 잇슨데이 ... 사람도 도망을가다가 붓잡혀서 거의 사지를운동할수업시 란장을 맛고 그우에한데로 쫓고나가 서 쉬지도안지도못하고 엉거주춤하게한후 묵어운련관을 고개우호로 놉히들고잇스라고 강제하야 근력이시진한두사람이 할수입시렬관 ... 몽동이로 란장을하야 필경종에 경신옵일홍후에야

한광디방 에를가서 영속하야 부해도

講演禁止는何故

강계수양단에대한 문흥경찰서의태도

평북강계청년수양회(平北江界靑年修養會)주최로 동군외촌각면을순회강연하기로하고팔월십칠일에 출발하야 십팔일문옥면 만포진(文玉面滿浦鎭)에서강연하얏는데 본서인 문흥경찰서에서는 ...

강연단을 방문하고 처음 ...

유지인사 로부터 동청의 면조하는것을 절대로 밧지말나고명령하고 이튼날고산진(高山鎭)방면으로 떠날때에도단당한 경찰서씨를불너그곳는가지안는것이 조타고말함으로 단당도그러면 명령이냐한즉 「명령은아니나 그곳은 독립단의 출몰도만하야 순사가 경계할틈이업고 민심이 엇덜는지 모르겟다는등 애매한답을주던바 「그러나일당을 발표하엿스니당지명령이 아니라는 이상에는고산진에 도착하여 강연을하려만흘수업다하고 ... 무슨중지가잇는지 강연을하지말게하라하니 유감이지만 고만두어달나함으로 단당은곳주재소를방문한즉 소장 원등경부보(遠藤警部補)는디방을 위하여로력하는 여러분을 나도어데까지던지 환영치아니할수 업승니다그럼으로 회당교섭도 하고기타여러가지로 면당과도 상의하엿는데 유감이지만 상관의명령을 엇지할수업승니다한다이에강연은〃아조뎡지되엿는데 일행은나날히 고대하던 그디방유지인사의 낙망은물론 강연단일행도 만흔불평을품고 도라왓다더라(강계)

夜學을妨害하는兩班

상놈을가르치면량반이 량반노릇을할수업다고

안동군도산면섬촌동(安東郡陶山面剡村洞)에서는리퇴계(李退溪)선생의후손이 양학(洋學)을금지한다고하면서섬촌동야소교회당(耶蘇敎會堂)을파괴하엿다함은 임의보도하엿거니와 그후에 그량반들은 더욱〃신문화(新文化)반대에열심하야그동리에서불상한로동자들이배우는

로동야학 (勞働夜學) 을 금지하얏다한다 이제 그사실을 자세히 탐문한즉 그곳은퇴계선생의 후손이수천명이 사는곳으로서 또한그들의게 복종하는종(奴婢)들이만히살게되엿다이로동야학도 역시리씨문중에 엇던청년이 예수를미든후 인심은누구나평등(平等)이라는생각으로 로동야학을 설립하고 그디방에 잇든 엇던서당(書堂)을 빌려서 로비의자녀와 량반의자녀를불론하고 열심으로가르치던바 섬촌동예수교회당을 파괴하고 몃칠이안되여 로동야학까지 금지하야 공부를못하게한다는데 그리유는 상놈의자식이 글을배와 알게되면

량반의게 복종을 아니하야 량반의세력이 업서질터이니 미리예방하는것이 데일 상책이라는 더러운생각을가지고 서당을빌녀주엇든사람을불너집을빌녀주지말나고 협박한결과 부득이집주인은 서당문을 닷아걸고 멀어 주지아니하야 로동야학은 폐지가된모양이라더라(대구)

密偵銃殺한兩人

무긔징역을불복하고공소

함경북도 성진군학상면 오덕동현주간도연길현 룡정촌 최익룡(咸北城津郡鶴上面五德洞現住間島延吉縣龍井村崔翊龍)(二七)외두명은 독립운동의 협의로함흥디방법원 청진지텽에서 최익룡은 무긔징역으로 그외두명은 징역십오년에 처한것을 불복하고경성복심법원에공소하얏는데 사실은 최익룡은 조선독립운동단에가입하야 경호부원(警護部員)으로일을보다가 그큰키사는 박성걸(朴性傑)이 가밀본밀뎡의 혐의가 잇다하야 룡정촌북구(北溝)에서오리쯤되는곳으로 끌고가서 륙혈포로 노아죽인것이라

優勝은高普俱에

대구뎡구대회의 최후결승권쟁탈

대구의 전조선뎡구대회의 데일〃경기성적은 임의 보도하얏거니와 데이일인 이십칠일은오전팔시반부터 데이회전이 시작되엿다 이날은일요일(日曜日)임으로구경군도 역시 전날이상에 달하얏고 이에따라서 각팀의권사들도 더욱백열뎍으로 활긔를내며최후의 결승권까지 하게되얏는데 데이회전의 성적은

(○標가勝)

○釜山鎭 對 馬山

高友園 對 高普俱樂部○

데이회전은 이로써맛치고 데삼회전의 추첨을한결과 대구청년회대부산진군(大邱靑年會對釜山鎭軍)이오고보구락부군(高普俱樂部軍)은 부전승(不戰勝)이되엿는데 삼회전은결승전(決勝戰)과가치역시 각렬예서죽을힘을다하야싸호고관중의응원도더욱격렬하얏는데 맛츰내 ... 남북대도회의 련전임으로 각조군도 역시대구방에와서 상업을경영하는사람이 만흠으로 응원이 적지아니한모양이다 즉시개천하야 개청군이삼대일로 대구고우단(大邱高友團)을 격파 ... 優勝旗授與式)을 성대히거행하엿더라(대구)

個人戰은開城에

설분전한개성군

전조선뎡구대회 (全朝鮮庭球大會)는 예뎡과갓치 이십칠일에 맛음 막을닷엇스나 비가옴으로 로 개인조전(個人組戰)은 일시중지하엿던바 이십팔일뎡오(正午)부터 개인조데일회전을 개시하게되엿는데 여러가지 관계로인하야 참가하엿던 개인조가 탈퇴(脫退)하게되며 부전조(不戰組)가 만히잇섯는데 전적은 아래와갓더라

倭館祖李組不戰勝

開城朱王組不戰勝

海星張組不戰勝

○開城金組對海星許李組

馬山金組不戰勝

開城鄭全組不戰勝

○大邱徐組對馬山朴組

高友鄕孫組不戰勝

第二回戰績

일회전을맛치고 즉시 추첨하야 이회전을 개시하엿는데 성적은 아래와갓더라

○海星張組對倭館李祖組

○開城金組對開城朱王組

○馬山金組對大邱徐組

高友鄕孫組對開城鄭全組○

第三回戰績

삼회전은 들어갓는데 이결승전은 남북대도회의 전정임으로 각조군도 역시대구방에와서 상업을경영하는사람이 만흠으로 응원이 대단한바 ... 아래와갓더라

再次綴戰한開城軍

개청군(開城軍)은 고보구락부군(高普俱樂部軍)과 ... 사이에 경기를하게되얏다 ... 에서 피곤하게 ... 착되여 전조선 ... 庭球大會)에참가하야 일홈 ... 대구고보구락부 ... 합을 이기지못 ... 갓나면 다시북 ... 로고보구락부군 ... 커다회에 그 ... 신법원 하오오 ... 나자 다시개청 ... 군이 경기를 하게 ... 구락부군이 사 ... 하엿다더라(대구)

怡隆洋行員逮捕

공산주의자련락협의로 평안북도경찰부에데포

중국안동현에잇는영국인쇼우(Shaw)씨가 경영하는이륭양행에서덤원으로일을보던김문규(金文奎)씨는 지난이십칠일에 평안북도경찰부의손에 데포되엿다는데 그사실의내용은 자세히 알수업스나 아마김씨가상해와 기타각처에잇는 공산주의자와긔맥을 통하야 공산주의를 선뎐한혐의가잇는듯하다더라(신의주)

日本軍艦沈沒

감찰가들경비중 폭풍으로침몰해

감찰가(勘察加) 방면에 경비중이든일본군함신고(新高)는이십륙일아침에「오데나야」부근해협에서 폭풍우로인하야 침몰할 모양이라는데 그배에탓는 사람들중에 겨우한사람이 살어잇고 남어지는 열여섯사람이 사려된모양이라는데 ... 아직자세치는 못하다더라(동경해군성발표)

遊興中의大賊

맛츰내데포되어

시내궁뎡동 칠십칠번디(宮井洞七七)에사는 리희영(李熙永)(三七)은절도전과가두번이나잇는자인데그는재작이십구일오전여덟시경에한청권번(漢城券番)기생황명옥(黃明玉)과함께시내신뎡(新町)근처로도라다니며질탕히놀다가 경찰당국에서는 기싱으로자동차타고 다니는것을 엄탐하는터이라 소관경관이 그들을 취데하라 한즉 그들은매우 언행이불순할뿐만아니라 도리혀반항 함으로로 ...

電車와馬車衝突

인축사상은업고 손해는모다갓다

재작이십구일 오후두시 사십분경에본뎡통뎡거장에서 경원(京城)방향으로 오던 명치뎡(明治町)에서 오는 뎐차가 대오신오호(大吾信五號)뎐차가 ... 황금뎡사뎡목(黃金町四丁目)부근을진행할때에 시내림뎡칠오번디(林町七五)에사는 리재근(李載根)이가마차를끌고 지나가든바 압흐로 뛰여드러 가던 뎐차가 오는것을보고 피하든차에 면차의 뒤 ... 으로 이뎐되여 그통안에 ... 차는 압체가파손되엿스며 다행히인축의사상은 업스나 뎐차의 손해는 ...

又復電車事故

금히덩거하다가 승객한명이부상

재작이십구일 오후한시경에 룡산방면으로부터 오던뎐차가 시내종로 오뎡목(鍾路五丁目)부근에 진행할 때에 ... 뎐차가 빨리 ...

汽車에轢死

재작이십구일 오후 ... 함흥디방법원 ...

金氏假出獄

宋氏假出獄

이원자리화재

天氣豫報

晴 一時曇 (自三十日午後五時至卅一日午後五時)

日出	上午五時三十二分	
日入	下午七時一六分	

◉온도비교◉(三十日)

最高	八六	
最低	六九	
平均	八〇	

温度 廿九日最高 九〇、〇

前氏 三十日正午 八六、〇

휴지통

▲근일시내의뎐차사고는 더욱증가되야 하루에도몃번식 충돌아니면 사면을치이는데 텰도에서도 이러치 이것은 적々늘어가는 모양인즉 「사고뎐용병」인가▲추풍이 멋첩재계속하낫가 뎐차에도 사람상하는새긔운이 낫는지는 몰나도 이대로악행을 계속한은 시민의 중대한불안이라 엇더한 특별한 칩은입습가▲시베리아에서 일본군대가 도라가게된 보도를보면 미듬수가업다 ▲최근곳소식은 이상한것이 매우만하서도모지 미듬수가업다▲최근에서는 즁국관헌이 조선인독립단을리용하야 마적을 토벌하라함으로마적은 도로혀 독립단을 습격하얏다고 ▲그러나 그디방소식은 대개 그짓말이 만흔것과 갓차이번사건도 엇더한 편에서 구실을만들어 가지고 마적을 식혀어독립단을 괴롭게하는 것인지도몰을것이다 ◆어느것이참소식인지는 몰으되엇지 하엿든지 고롱과 핍박을당하는것은 조선인인것은 의심업는 사실이다 ▲밥도업고 돈도업고 옷도업는 그들에게 간데족々핍박만잇게 함은인범벌가 「하느님굽어보소서」

非常하게好評밧는 淋疾速効藥

▲淋疾은齊通藥으로根治치못한다▼

中風病

外耳鼻咽喉科 方奎煥醫院 西大門町一丁目 電話一〇九

健腦神藥

消風丸 壽山藥房

音樂個人敎授 竹南樂器店

新學期에

暑中에健康을비옵나이다

男女學生여러분을歡迎하나이다

朴德裕洋靴店

歲月이흘러감이於焉間三伏이다지나고凉氣秋節을當하야男女學生여러분이故鄕山川을떠나서다시學窓으로돌아오시는때에健康하신얼골을맛나게되오니깃붐을마지아니하며더구나今番에는新學期를當하야學生여러분을爲하야學生靴를特히 … 廉價로 … 提供하겟사오니 …

期限 自大正十一年九月一日 至同年十月末日

昨秋의ㅣ朝野에非常한好評을得한洋靴는大割引의キユポン券을添呈하야準備하옵는바一部分의キユポン券과隨意交換케하오니期限內에陸續下命하심을바라나이다

京城府寬勳洞一六九番地 朴德裕洋靴店 電話本局二四八三番 振替京城一六八五番

女丈夫(녀장부) (六三)

雲人譯

장미를장별하고 감방밧그로 슬며가는장필원의 심중은 과연엇더하랴—그는이세상에가지만사를단념하고 오즉사형만 기다리든몸인데한번 장미가사라 잇다는말을듯고 내면혼식여주면 구태여형식만이라도 혼례를하야 부々의일홈을 띄이고함의 죽으려하얏것다그것을 유일한 소망으로알고그소망만 이루면 더할수업는행복이리라고 깁히깃버 하든것도잠깐꿈이요 의외에 장미의입에서 다른사람에게 애정을허락하얏다는 말을듯엇다 그런중더구나 나의애인을 빼서간사람은나의 덕군이다 장미가일시그사람을 맛난죠로 그사람과함께여러번 사실의디경을 지낫다고는하지마는 아몸덕시 장미를위하야는 목숨쓰버리고자 한일이엇던지 알수업다 어려서부터친동기도 따르지못할만치 친히지내고 누가보든지 엇혜는부부가되리라고 부러워하든 사이인데그소망을 이루지못 하는것이얼마나 원통한일이냐 그러나장필원은 장미에게 원망의말한마듸하지아니하고 도로혀 장미와그사람이 길히행복 스럽게살기를축수하고 만일자긔가 사라잇스면장미가 평성을 마음을놋코살지못할가 념려하야 내몸이죽어장미의 마음을 편안하게하기로결심하얏다 이와가치가련한경우가이세상에어데또잇스리요 그러나 장미의심중은 장필원보다도더욱 애처롭엇것다 장필원이가 나간동시에 긔절하야마루위에쓰러진는대 장필원은문밧게서 이소래를듯고「아—장미가—」하고부르지々며 감방으로다시드러가려는듯이 굿게 잠기인텰창에 매여달니려한즉 순팔이는황망히 이를케어하며「무얼—너무리약이가 긔절하야 너머진것한녀자가 긔절함이야 집기때문에 심약이겟지요차마루위에 니것가고대로내여버려두면 내일아츰에는다시피여나겟지요」하고 무정하게떠밀치다 장필원은 이를케항할힘도업시 반은정신을 일흔대로사오간이나쓸녀가더니 또다시정신을차리어가지고 간절한것과가치지긔가죽고 장미를 살녀내일길을구하고자 순팔에게향하야

필「당신이엇던사람에게 나를살녀내이어 달나는청을 바드셧나지요그원은나를살녀내일성각을말고장미를살녀내서요장미를살녀내이면그사람이반듯이나를 살녀내인것이나 다름업시보수를 줄터이니— 아니그러느니보다도 장미를 살녀내이면 더만히보수를 밧도록내가편지를써주리다」하니순팔이는 앗가장필원을 쉽히든배와는 태도가딴판이 매우링담하게

순「아니—엇졔 당신을 살녀내이어달나고 한사람이잇다 치드래도 그사람이 장미를살녀내이는데는 보수를 내이지아니하리다!」

필「하여간 나는사라나고십흔마음이조금도업고 다만사형을바들결심이니까 당신이 나를살녀내고 보수를바드려든일은 장패되엿소이다 내대신 장미를살녀내이는외에는 그보수를바들수가 업스닛가! 그리지말고 아모조록 장미만살녀내시요 장미를살녀내서 할부위에게 맛나게하야주면 반듯이그두사람이 비밀주머니 리약이를 당신에게 아르커줄터이니—」

순팔은 임의장필원이가 비밀수머니의속을 모르는줄 알음으로그에게는아모말도더드를필요가업다고 싱각함인지

「아니—잠잣코 잇지안으면또수보는 간수에게 들키입니다」하고 등뒤를가르친다 장필원이도도라다본즉과연등뒤에조곰떠러키서 앗가순팔이와 함의자긔를호위하야 장미의방외지 다리고가든 간수가 가장고요히따라오는중이라 할수업시 입을다물고 다시는아모말할 계ㅅ케를엇지못하얏다 그대로그친잇슨 감방으로도라와서그권대로가치엇다 순팔이는 따수보는간수와 작별한후 자긔려관으로도라오면서 여러가지로성각하기를

「흥—아모도 그주머니의비밀을아는놈이업구나 장미를살녀내서 황부위에게넘기고 그보수로 그비밀을 듯는수밧게업는게야— 그러나 황부위는 매우녕악한자이닛가 부위가 장미에게부터잇스면 나는 그유산의반밧게 더차지할수가 업다니란본이느니보다 둘차지를하고십흔데—엇더케장미를살녀

—그러기때문에장미는장필원에게 아모말도 하지안는가보다! 말은하지안는다도 실상 비밀을알고잇는지도몰나—올치々々내일아참이되거든또한번수단을써보리라」

묘책을 싱각하는듯이 중얼거리는것은 과연엇더한 수단을싱각함인가

머리기름에는
광천이름
이케일이요
한병에사십전식
製造元 光鮮社
京城府黃金町五丁目一二三 電話三七三番
시내각유명잡화상에서팝니다

仁川在庫穀物

仁川穀物協會調査에依한當地六銀行八月二十八日穀物在庫數量은如左한바玄米는前調보다五千七百九十一石二斗가減하얏고大豆는變動이無하며各種의詳細數字는如左하더라

玄米	四斗入	二二、五一一叺
同	五斗入	一一、六六五
同	六斗入	八五〇俵
白米	三斗入	五〇〇叺
同	四斗入	三九
同	五斗入	三三〇
同	七斗入	一〇〇俵
大豆	四斗入	二、〇九五叺
小豆	五斗入	六〇
小麥	四斗入	二三、三五八
同	五斗入	一、六二七
大麥	四斗入	三八〇
同	五斗入	九七〇
正租	俵入	六、三八九俵
折米	四斗入	二、〇六三叺
同	五斗入	二三三
粟	五斗入	一六六
同	七斗入	七八三俵
黍	六斗入	三二四
蕎麥	五斗入	一八〇叺
糯麥	四斗入	七〇四
同	五斗入	九三
外國白米	六斗入	六二俵

(仁川)

鳳山人士水害救濟

黃海道水害狀況은이미報道하얏거니와沙里院有志一同은八月廿四日鳳山郡廳에此의救濟申込이如左히有하얏다더라

殖產組合小米十石李應斗小米五叺李昌彧金百圓崔潤植白米四叺盥一石金百圓共助商會、崔基恒五成商會各百圓鄭觀國小米五石崔李峯五十圓李德基、崔秉恒各百圓李門在、田在學各二十圓崔亨坤六十圓金萬範、李載殷各二十圓尹台燮百圓金國俊、朴鍾禹金錫熙、姜允輔各二十圓李淳健百圓李忠燁二十圓(沙里院)

山亭第六回講演

新義州光城面城外洞山亭留學生講演會는八月二十七日下午三時에第六回로開會하얏는데李鳳首君의司會下에張晟栻君의祈禱가有한後梁世奉君의「新舊思想의衝突」이란題로熱辯을試하얏스며更히李鳳首君의바이올린獨奏가有한後金學賢君은「現在우리家庭」이란題로雄辯을吐하얏스며演士一同의合唱으로閉會하얏는대當日數百名聽衆의게多大한感想을늣기게하얏더라(新義州)

公州勞働共濟講演

忠南公州勞働共濟支會에서는八月二十五日午後八時부터當地錦江館에서講演會를開催하얏는대京城本會에서出張한白光欽氏는「今日의趨勢」라는題로申伯雨氏는「勞働의權威」라는題로各々長時間의熱辯을揮한바聽衆이千餘에達하얏스며午後十一時頃에閉會하얏다더라(公州)

南川罹災救濟詳報

京畿道南川驛은既報와如히酷甚한洪水에家屋及家產을全部流失한바此無所歸의人民을救濟하기爲하야當地有志의發起로臨時救濟會를組織하고任員全部가各方으로活動한同時有志諸氏의出捐品이踏至하야左記와如한데그芳名은如左하다더라

崔台鉉小米拾叺金樂元市命甚李驗夏各小米四叺金壽玉閔泳大金鍾春金東元沈遠學閔泳恩小米各二叺河亨龜羅賛紀崔殷楨李東洛尹宗洙李燦雨田炳雲全觀奕吳常泳崔命麟黃龍俊崔光奕崔富鉉李甫淳鄭榮部俊悙申永秀閔光鎬辛根浩閔泳晶閔泳仁閔丙元閔敦植金許九申秉熙閔泳台金在奕小米各一叺閔範鎬小米四叺李寬哲小米六叺閔泳文小米四斗閔泳琇小米一斗申台均小米一斗五升池在福小米一斗開城水災救濟會金一百圓白米一叺開城南監理教會二十圓進浦里耶蘇敎會金十五圓白米一叺進浦里一同金十圓閔泳昇辛琦泰崔士均各五圓橋高成二笠原敏二非內源吉河野毅荒川保市田潤三平坂原良槌非同金百圓愼冀範李貞淑申淑在各二圓李駿夏柴草三十束舊南川一同醬四斗愼九範醬油一斗金在股金秀濟柳成賀各醬油七升實山洞中醬油四斗(南川)

觀光團組織과非難

八月廿三日全南靈岩郡廳에서는面長協議會를開하고朝鮮內各都市의產業을視察할目的으로觀光團을組織하얏는대團員은每面職員一人有志二三人、團費는五十圓、旅行地는水原京城開城平壤日字는九月五日로決定하얏는대其後同郡廳에서는視察地中平壤開城을除拔하고團費를二十五圓으로變更한지라此에對하야團員志望者中平壤開城이旅行地에들지아니하면우리는參加하지아니하겟다하는者이多한바其理由는平壤開城은朝鮮人의活氣를觀察케함은不利이라는內容이라는대地方人士의非難이多하다더라(靈岩)

倭館少年會紀念

倭館少年會는昨年六月에創立된바同會發起者李鍾成君은同會發展及維持方針에努力하야漸次振興하는바八月廿日은同會創立紀念日이라一週年自祝紀念으로倭館에居住하는日本人靑年團과日人尋常高等小學校運動場에서庭球試合을行하얏다日本人靑年團이慘敗하얏는대觀客은二百餘名이엇더라(大邱)

松林洞人士의計劃

慶山郡龍城面松林洞에서는洞民이合同하야改良私塾設立을經營한다는대同面에는今春에公立普校가新設되고附屬으로中和學校外지設立되얏스나兒童收容力이不足함으로因하야敎育上困難이多함으로松林洞百五十餘戶가合力하야同私塾設立에奔忙中數次會合이有하야圓滿決議되얏슴으로不日內로義捐募集에着手하리라더라(大邱)

金相翊外五人出獄

金相翊宋一園李容暄安成連金仁寬權明福等六氏는制令違反으로己未八月分入獄하얏든바伊來三個星霜을鐵窓下에呻吟하다가去二十三日에滿期出獄하얏다더라(元山)

光州市道路新設

南鮮鐵道의開通과年來懸案인光州市區改正에基하야光州市街의交通狀態에變改가有할것은預期의事이어니와日本人小學校前으로부터森平組前을經過하야道廳前으로直通되는道路의新設工事는九月上旬부터着手된다더라(光州)

大英校友會創立

慶北漆谷郡南栗面海昌里私立大英學校卒業生一同은親睦과母校의發展을爲하야一이라도計劃코져八月十五日午後一時母校內에서大英校友會創立總會를開하고會規의通過와役員의選擧가有하얏는대當日被選된役員은左와如하다더라

會長金仁洙副會長金鎭燦書記安東禧李憲根會計尹世容趙殷敎議員金弘洙外四人(海昌)

花城少年會發會式

橫城郡邑內花城少年會에서는八月十五六兩日間本邑耶蘇敎會堂內에서發會式을擧行하얏는바牧師趙根炎氏의開會辭가有한後金鎭滕의學問이라는題로熱烈한討論又는主日學校女學生의淸雅한唱歌及活潑한遊戲가잇슨後少年會員들은子女解放이라는趣旨下에歌劇이잇섯는데一千餘名의多數한觀衆에게快感을주엇다同時에男女側의同情金이左와如하얏더라

金十圓東亞日報橫城分局金五圓式橫城靑年會卓英才趙根英尹錫與金參圓式金漢順吳達泳花城幼稚園無名氏金貳圓式花城理髮所尹泰年趙龍漢尹秉成尹泰煥韓東泳卓命洙林東洙李日成金一圓式崔仁釗朴昌成申鉉南趙赫鉉辛承厚方鎔榮金昌洙韓仁洙申相鎬馮方春榮吳奎善金允洙柳志衍柳斗赫金斗善尹錫煥成喆南方興範李鳳善柳命祿趙俞鎬李東壽秋秉玉趙東燮其他十一人의金五圓五十錢(以下略)(橫城)

留學生招待盛會

既報와如히龍川의在外留學生慰勞宴은豫定과갓치八月二十日當地公立普通學校에서左記順序에依하야開催하얏는데當日은霖雨로因하야交通이困難임을不拘하고參席員이百餘名이오傍聽人員은男女三百餘名에達하얏더라

一、奏樂
二、開會辭 普校教師 李內益
三、歡迎歌 救世校男女學生
四、歡迎辭 發起人代表 金容奎
五、來賓答辭 明治大學 黃觀河
六、唱歌 普通學校生一同 張內俊
七、勸辭 本郡守朴秉根及李錫泳
八、留學에對한所感 中央大學 李明植 同皇道中學 金益鎭 明大 金容燮
九、龍川在外留學生歡迎歌
(龍岩浦)

●光州郡廳移轉 光州郡邑內東光山町에新築中인光州郡廳의建築工事는無碍進捗中임으로來十月中에는移轉視務케될터이라더라(光州)

●麗水婦人親睦團來光 麗水郡에서組織한婦人親睦團四十名은八月二十六日에木浦로부터來光하야全南道廳濱崎技手의案內로各所를參觀하고二十八日에歸郡하얏다더라(光州)

●濟衆醫院開業 宣川米東病院에서多年間視務하든愛知醫學士金秉瑞氏는今番濟衆醫院을經營하야平壤府鍾路公立普通學校압에二萬餘圓의工費를投하야二十八日부터醫業을開한바開業當日부터九月一日外지向五日間一般患者의게無料로診療를施한다더라(平壤)

●田中氏의慈善 大邱府元町一丁目三中井吳服店裁縫部日本人田中定則氏는八月二十二日午後十時半頃에夜市를巡覽하고還路에大邱驛前十字街路上에서朝鮮人少年雜末輔이라는者가脚症으로死境에至함을見하고即時人力車에乘케하야自己家로同行하야今日外지治療救濟하야준다는바一般은該田中氏의慈善을稱揚한다더라(大邱)

●李昇薰氏歡迎會 朝鮮獨立宣言者의一人으로모든教育界에有名한李昇薰氏가安州에서開催하는教育宣傳講演에參席키爲하야八月廿四日來安한故로當地一般人士는同日午後五時에同氏에對한歡迎會를安州靑年會館에開하고萬歲舜氏의歡迎辭와李氏의答辭로歡談後更히晩餐에入하야七時에散會하얏다더라(安州)

●高敞幼年軍慰勞會 全北扶安郡茁浦에서八月二十五日開催된湖南幼年蹴球大會의優勝旗를得한高敞軍一行은團長成輝君引率下에高敞各團體多數歡迎裡에同日午後十一時歸着한바勝戰歡迎과萬歲聲은郡內城中을振動하얏스며翌日午前十時靑年會館內에서慰勞會를開하고劇會長殷圭寅氏의開會辭와選手中金剛顯君의答辭로盛大히擧了하얏다더라(高敞)

●兩視察團同着 全南務安郡棉作組合에서는例年과如히棉作狀況을視察키爲하야管內慈恩及岩泰兩面에서十六名의婦人을一團으로하고組合員金鎔植氏의引率下에且同郡飛禽面草面에서도組合員權寧仁氏의引率으로十八名의婦人을一團으로組織하야二十六日午後一時兩團一行三十四名은同船으로來木하얏는데其翌日午前九時부터勸業模範場及市內各會社工場等을視察하고二十八日午前九時一番列車로光州에出發(木浦)

●婦人視察團 全南谷城郡棉作組合主催로組織된婦人視察團一行十三名은同郡屬申祐氏引率下에去二十五日午後五時木浦에來着하야其翌日午前九時務安郡勸業模範場을視察하고午後一時부터同市內東洋紡績會社其他工場等을歷訪하고二十七日午前九時光州로出發(木浦)

各地靑年團體

文幕靑年會美擧

江原道原州郡에는日前豪雨에河川이氾濫하야洪水를成함으로附近드는人命、家屋、田畓等多數의被害者가生하야悽慘한情況을當한지라文幕靑年會員은大活動을開始하야該會의發起로地方篤志家諸氏로부터約四百圓의同情金을募集하야被害者中極貧者三十三戶(人口百二十八人)에게甲、乙、丙의等級으로分配救助하얏다더라(文幕)

江界靑年巡講團

江界靑年巡廻講演團一行十人은去十八日上午滿浦鎭에到着하얏는대文玉面職員一同의援助로同日下午八時半부터普成學校講堂에서講演會를開催하고洋樂隊의奏樂裡에金英武氏司會로金永洙氏의歡迎辭와演士李哲奎君의「我等의將來」金成吾君의「我들의使命」外敎育、韓景夏君은「產業獎勵」이란題로各々熱辯을吐하얏는대雨大임을不拘하고聽衆이二百餘人에達하야盛況이엇더라(江界)

肅川蹴球團着發

肅川靑年會蹴球團一行十一名은安州學生會及廣水俱樂部員과親睦을圖하며競技를試할目的으로團長張仁君의引率下에本月二十三日午前에來安하야安州留學生會에서는一行에對한歡迎會를維新學校內에開하고談情話를畢한후午後四時가되매西門外運動場에서肅川軍과留學生軍間에蹴球競技가始作되얏다兩軍은陣容을整齊하고金振聲君主審下에戰鬪하는光景은實로勇敢하야一般觀衆으로하야금拍手의聲援을自發케한다肅川軍의體格은비록强壯하나作戰計劃의連絡이不充分하야結局三對零으로敗戰하고다시肅川軍은沮喪한元氣를回復하야가지고安州勝水軍과對戰하얏스나亦是慘敗를當하얏다더라(安州)

玉果基督靑年會

谷城玉果에在한耶蘇敎基督靑年會에서는去月末同敎堂內에서臨時總會를開하고前會長趙九鉉氏의司會下에任員改選에關한件을决議하고會則을改正한後任員選擧를行하얏는데選擧된任員은左와如하다더라

會長鄭九鉉副會長金奉烈記錄書記金鉉宰書記鄭遠道部長金社交部長金容仁德育部長尹秉達財務部長金泰烈(光州)

留學生軍의大捷

陝川靑年會對陝川留學生親睦會의野球試合勝敗는未決함은本紙에既報와如하거니와數日來雨霖으로因하야延期하얏다가本月二十四日下午四時부터同戰場인大耶벌에서兩陣이決戰하야男女觀客의團體中에서技術과勇氣를鼓動하야漸次兩軍이入하는대留學生軍이拍手喝采裡에서戰을繼續하얏스나結果는十七對六으로靑年軍이慘敗하고勝戰한留學生軍은欣抃不已하얏다더라(陝川)

聯合音樂演劇大會

京城巡回音樂團一行四人은半島苦學生巡廻劇團一行九人과西道地方으로巡回하든바八月二十五日에는鎭南浦에到着하야當地三和靑年會와朝鮮日報支局及本社支局三團體의後援下에苦學生巡廻劇團과京城巡回音樂團의聯合音樂演劇大會를二十六日下午八時半부터當地에서開催하얏는데當日은雨天임을不顧하고定刻前부터踏至한觀客은四五百名에達하얏스며音樂과演劇은一般觀客에게感興을주고同十一時半에閉會하얏는데同情金이百餘圓에達하얏는데氏名은左와如하다더라

金煥二十圓李達協李甚周客主組合仲介組合留學生學友會朴卿衛各五圓天道敎靑年會田仕明鎭南浦勞働組合張瓚根嚴錫洪李濟國各三圓李任魯金秋蝶朝鮮日報支局各二圓徐相德一圓(鎭南浦)

河東各團蹴球大會

慶南河東郡에서는當地靑年會主催로八月二十日에蹴球大會를邑內運動場에開催하얏는대參加團體는當地風雲蹴球團解良運動俱樂部在京學友會三團體라試合을行試한지一時間後에解良團이優勝을當하고學友會와風雲團이相對가되야午後八時頃에지勝負를未判하고翌日에다시始作하얏스나勝負未决이되야二十三日에勝利를得한바結局優勝旗는學友會로歸하얏다더라(河東)

學生演藝團續報

熙川郡私立學習院高等科師範生으로組織된學生演藝團一行이德川에來到하얏다함은既報한바어니와德川天道敎靑年會의後援下에十五十六兩日間邑內에서開演하게되야第一日에는女子의立志라는藝題로下午八時부터始作하얏는데觀衆은數百名에達하얏스며第二日에는友情이라는藝題로開演하얏는데聽衆은昨日보다增加하얏고同情金이多額에達하얏다더라(德川)

俱樂部討論會開期

江華沁都靑年俱樂部에서는九月四日(日曜)下午八時城內中央公堂에서『男女不平等의原因은智力이냐經濟力이냐』라는題로討論會를開催할터이라는데一般部員은勿論男女傍聽을大歡迎한다더라(江華)

靑金屬 時計
京城本町二丁目 電話一七四一 振替京城三一九〇
村木時計店

萬病이라고百方治療하야도見效치못하신患者諸位는最後의手段으로本劑를根治法으로하시옵소서來談하시면親切히指導하겟읍니다
京城黃金町三丁目電車通
有田드라구商會
電話本局一六二九番 振替京城一三七六番

淋疾 梅毒 痔疾

施行
新發明 獨逸製 六〇六號注射 癩病全治注射
慶南三千浦 壽一醫院 醫師 朴永周

直營 高級映畫 黃金館
◎當二十九日부터特別興行
喜劇 第三列車 一卷
活劇 사-가스王 四卷
結婚의陷穽 五卷
皇后崎心中 五千呎

八月廿九日부터 高級部交換
新連續提供 大活劇 神秘의幻影 三十卷中 第一回
社會劇 飛鳥와갓치 全五卷
社會劇 正義의力 全五卷
喜劇 네브가-의日常生活 全一卷
大正活映株式會社一手特約 團成社 電話(光)九九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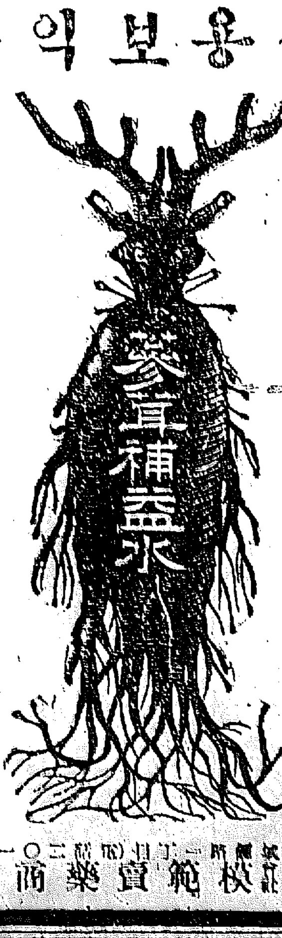
新式流行唱歌集
定價 四十二錢 送料 十錢
社交界의 奮鬪兒는 新詩調를모르고야!
靑年界의 敏腕家는 流行唱歌모르고야!
娛樂界의 豐嬌娘은 靑邱俗歌모르고야!
全朝鮮의 旅行家는 鐵道唱歌모르고야!
俱眼士의要求키는品質美의唱歌集을 百二十餘種의唱歌로組織된
■但地方愛讀僉君子는特別注意하시요
現今本冊子를擬模하는者有하오니注文하실時는반다시本市編纂을指定하시와眞正의新式流行唱歌集을購得하시깃삽나다
總發行所 京城堅志洞八十番地 振替口座九六七九番 廣文書市 謹告

靑年運動靴
最新改良製
靑年運動靴製造販賣
京城府仁寺洞一七〇番地 고무底便理靴 各種經濟靴及靑皮底運動靴
고무底靴製造所 主 張泰榮
模樣과 堅固가 時에 第一必要

職業
三圓 友榮商店

貿易商 金相範商店
馬山府 電話六三番
米雜穀小麥海陸物產及委托販賣

求業諸氏의게
熟練日收三圓特約店大募集(大回)
原料確實貸與
(原料一組代)八圓八十錢 二種이有함
(製作品)
朝鮮總特約 友昇商會
振替京城四八〇九番

삼용보익수

蔘茸補益水
男女를勿論하고補陰補陽에特効함
代理販賣店
校範寶藥商會

▼新案特許의▲
學生用雨衫
實用向 布製 고무引雨衫
外套型 小兒用

右外各種貨物用雨覆 特製油紙其他防水布紙一式
京城府 朝鮮防水布紙株式會社

女子實習生大募集
半島洋服實習所 白

仁川府學校評議員故李鍾愼氏의葬禮日時는來九月一日(陰七月初十日)下午四時로定하옵고玆에謹告함
仁川府外里一百九十七番地 護喪所

ClibPDF - www.fastio.com